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절절한 경모심이 온 나라 강산에 차 넘치는 7월의 날과 날이 흐르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7월의 하늘아래서 더욱더 가슴뜨거이 절감하고 있다.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나라와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뜻과 념원은 온 민족이 통일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며 자자손손 복락하는 것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을 위해 온넋을 강그리 불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 이시다.

일찍이 10대의 어린 시절에 조국해방, 민족해방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반일독립을 위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시고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20성상을 헤아리는 간고한 항일 혁명을 벌리시던 나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는 대단합의 경륜을 펼쳐시여 조국을 해방

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업적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새겨져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피어린 길에서 수령님께서 그려보신 조국은 하나의 삼천리강토였다.

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3천만가운데 조국해방이 곧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낳고 그 분단과 분열이 근 반세기의 대극난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쓰시였다.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기나긴 세월 그이께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기울이신 불변 불류의 로고와 심혈, 쌓으신 업적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자자구구에 력력히 어려있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관련문건에 남기신 친필에도 그대로 깃들여있다.

《 김 일 성

1994. 7. 7. 》

수령님의 체취스민 글발을 새

긴 관문점의 친필비는 오늘도 스무해전 그 나날에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우리 나라의 통일이 머지않아 이룩될수 있다고,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몇해사이에 부자의 나라로 될수 있다고 조국통일을 락관하시며 불변불류, 불철주야의 심혈을 기울이신 수령님의 로고를 길이 전하고있다.

언제인가 관문점을 시찰하시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기록하고 위대한것이라고 하시였다.

수령님의 필생의 뜻과 의지가 빛발치는 친필을 보면 그이께서 헤쳐오신 통일장정의 날과 날이 파도쳐온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마련하시고 사상과 정견, 신앙과 제도,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 동포들을 민족대단합과 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조국애, 숭고한 도량과 덕망은 지금도 민족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통일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고매한 인덕에 의해 최총회, 문익환, 윤이상, 김성락을 비롯한 해외의 수많은 각계층 민족성원들이 통일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을수 있었다.

외세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 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있을 때 폭넓은 북남협상제안으로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였고 외세와 남조선의 대극배족세력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으로 배격하시며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신 수령님 이시였다.

그 나날 평양을 방문한 남측의 고위정객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민족의 수치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고 대화도 하면 능히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

다고 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최덕신동포를 만나시였을 때에도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문제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 이시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수령님께서는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변 불류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였다.

하기에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애국애족애민의 헌신적품모에 감복한 한 해외동포분필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년로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37~38℃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온갖 피로도 잊은채 강행군을 하셨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왔을 때 서해감문 등 여러곳에 동행했고 장시간 회담도 하셨으며 북남최고 위급회담날자가 확정된 뒤에는 이제 통일을 위한 큰걸음을 떼는것이라며 수많은 복잡한 문제

들을 다 풀어주시였고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현지지도도 하시고 수많은 일군들과 만나 담화도 하시였다.》

진정 민족과 통일을 위하여 가장 빛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수령님이시기에 태양의 모습으로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신 조국통일의 뜻과 념원은 그대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고 의지였다.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 살도록 하시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었다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구현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발표하시였으며 하나된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뜻과 비범한 령도에 의해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장엄한

6.15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통일운동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시는 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열은 곧 매국이라고 하시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파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시였다.

오늘 6.15를 부정하며 역행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은 악랄하고 집요하지만 겨레의 자주통일의 발걸음은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먼 래일의 모습이 아니다.

온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통일념원을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통일되고 부강한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사 랑 의 구 원 조 치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제53(1964)년 여름 어느날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남조선어민들을 구원해주시고 동포애의 정을 부여주신 이야기는 겨레의 마음을 뜨겁게 적서주고있다.

그때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낚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민들이 풍랑에 실려 우리측 령해에 표류해온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즉시에 해군함정들을 출동시켜 그들을 구원할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눈 물 의 상 봉

주 제 63(1974)년 9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련의 방문단을 비롯한 여러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대표단성원들을 만나신 그이께서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백두산에는 가보았는가, 방문단에 15살난 어린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니기 힘들어 하지 않는가 등을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이윽하여 전체 대표단성원들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

아버이수령님께서 취해주신 뜨거운 동포애적조치에 의해 사나운 풍랑속에서 구원된 남조선어민들은 어려운 생활난속에 부대끼며 생긴 증병들을 말끔히 털어버리게 되었으며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온정깊은 생일상도 받아안게 되었다.

다심하신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들을 따듯이 돌봐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남조선어민들은 목이 메었다.

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평양에서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자주 만나고 우리 나라의 여러 부문 일군들도 늘 만나지마는 일본에서 조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만나는것이 제일 기쁘다. 사람들사이의 혈육의 정이라는것은 매우 깊은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포형제자매들이 조국을 찾아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히 조국에 온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설레이며

감개무량해지곤 한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들은 동포들의 눈가에는 격정의 눈물이 고여올랐다. 수령님께서도 격해오르는 심정을 다잡기 어려우시여 천천히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오늘 동무들을 만나니 기쁘기 한량없다고, 앞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남조선에 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더 클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로는 호느낌소리가 점점 커가는 장배를 향해 진정하라고 손을 저으시며 혁명의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는데 모두 잘 투쟁하여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상봉으로부터 헤어질 때까지 시간은 눈물속에 흘렀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달래이시며 오늘의 상봉이 너무 기뻐 동무들이 눈물을 흘리고있는데 동무들이 그러니 나도 목이 메어 연설하기 어렵다고 나직이 말씀하시며 그들과의 헤어짐을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관련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그때로부터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 김 일 성

1994. 7. 7. 》

아버이수령님께서 남기신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안되지만 거기에는 수천수만자로도 대신할수 없는 심오한 내용과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이 어려있다.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시고 겨레의 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8.15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시기

에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신본도,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본도 수령님 이시다.

통일3대헌장에도 깃들여있고 《조국통일5대방침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에도 그대로 어리여있다.

밤이 되면 남녘인민들의 생

분열된 조국의 상처, 겨레가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분투하시다 순직하신 수령님의 로고를 길이 전하며 관문점에 그이의

통일애국의 뜻 어린 글발

같이 더 난다고, 분렬된 조국의 력사가 하루하루 깊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통일은 더 멀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생신날마저 쉬지 않고 시고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밤을 지새우곤하신 수령님의 모습을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하고있다.

친필이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두해전 그곳을 찾았을 때 수령님의 친필비를 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그이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더듬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관문점

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조합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관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하시며 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반드시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였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념원이 깃든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 어

피눈물의 7월부터 지난 스무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위업과 뜻이 줄기차게 이어져온 나날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인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였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살도록 하시려는것은 수령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워야 한다.

대국상의 그 나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다.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완성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것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평양을 방문

한 남녘의 문익환목사의 미망인 박용길동포를 만나셨을 때에도 먼저 가신분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시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굳은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는는 수령님의 념원으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나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안으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이룩하자》와 같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전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시였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민족단합실현의 보다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장군님이시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사상과 정견, 신앙과 제도 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하시려는것은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의지였다.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련이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통

일시대가 밝아오게 되었다.

열화같은 동포애와 민족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장군님께서는 자주통일시대의 격류에 몸과 마음을 합쳐 앞을 다투어 평양을 찾아오는 남조선 각계층 동포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6.15공동선언리행에로 고무격려하시였다.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세차게 일던 그무렵 남조선의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이 평양에 왔을 때였다. 그를 따듯한 동포애로 환대하시며 긴강도 널리하시고 기업형편에 대해서도 일일이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그가 민족화해의 길을 여는데 공적이 크다고, 그것이 앞으로 력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크나큰 믿음과 평가를 하셨다. 그러시

고 장군산관광대발을 비롯해서 그가 원하는 문제들을 다 들어주었고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력을 잘해나가도록 할때 대하여,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살게 하자는 사람들과는 그 누구와도 언제나 손잡고 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셨다.

대기업가인 자기에게 베푸신 장군님의 해해같은 믿음과 도량, 인정미에 감복한 정주영선생은 후날 북을 방문한 소감을 리놓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내가 세계를 다니며 장군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진짜 장군다운 장군은 김정일장군이 처음이다.》라고 진정을 토로했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평양행을 단행한 정주영선생에 대해 사람들은 수령님시대의 김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조국해방후 백범 김구선생이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고 그이의 민족대단결경륜에 반해 자신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그이께 맡겼던것처럼 80고령의 기업가 정주영선생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고 그이의 위인적덕망에 매혹되어 그이께 민족의 통일번영이 달려있다는것을 절감하였던것이다.

북남삼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회담과 대화들이 이어지고 북남사이의 다각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기있게 벌어진 사실,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부산으로 각계층 동포들이 서로 래왕하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치르어 겨레의 마음속에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의 미래와 신심을 안겨준 이야기들은 지난 스무해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잊을수 없는 추억이다.

《이제 북남관계는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 《력사가 만들어졌다.》고 터진 감동과 환희의 열광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운이 크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장장 반세기의 세월 모든 사색과 심혈, 불변불류의 정력적인 실천으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오신 민족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근 70년을 헤아리는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대한 장군님따라 6.15시대를 맞이한것처럼 우리 겨레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숭고한 뜻, 조국통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서 통일시대의 앞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림소영